

이렇게 들었다

II 교과서 채택률 0.1%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교훈

■선도(善道)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말의 약이 제일이다.

<정법염처경>

■진실과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외도에 이끌리는 일이 없다. 그들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서,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걸어간다.

<근본경전>

■한 가지 선심(善心)을 닦으면 백 가지 악을 물리칠 수 있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고, 작은 불이 모든 것을 태우는 것과 같고, 소량의 독약이 증상을 해치는 것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도 모든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열반경>

일본의 내년도 중학교 교과서 채택 절차가 15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기술한 역사왜곡 교과서의 채택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일 현재 일본 시민단체 등의 조사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가운데 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특수학교인 양호학교 두 곳만이 채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립과 사립 중학교 가운데도 왜곡 교과서를 채택한 곳이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때 채택률 12%도 가능하다고 했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예상이 이처럼 크게 빗나간 것은 한마디로 '진실의 힘' 때문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와 학계의 거듭된 비판은 물론 시민단체의 조직적인 채택 반대 운동이 자국 국민의 이성(理性)적이고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유도했다. 어쨌든 한 두 사람, 한 두 단체의 물지각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일본이지만, 적어도 이번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결과와는 일본 내에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는 교훈을 남겼다.

논어에 '교언영색선의인(巧言令色鮮矣仁)'이라는 말이 있다. 교묘한 말과 꾸미는 낱말은 진실한 뜻이 없다는 뜻이다. 진실을 가린 채 꾸미는 말과 얼굴이 아름다울 리 없고, 오래 갈 리 없다.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다 죽을지언정, 자신과 남을 속이면서 목숨을 부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바른 길(道)을 가다가 빈천 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으로 부귀를 누리며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다.

<열반삼매경>에 "늘 지성으로 행동하여 꾸밈이 없으면 그 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또 <열반경>에는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커서 큰 그릇도 채우고 만다"는 가르침이 있다. 이 두 말씀은 진실의 힘과 진실되지 않은 과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한영무 기자

日총리 야스쿠니 참배 '잘못된 선택'

불자 세상보기

돈키호테같은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8월 15일 종전기념일에 한다더니 8월 13일 마치 일본합대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듯 참배를 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는 겉으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따른 참회와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전쟁영웅에 대하여 추모와 참배를 하는 이중적 행동을 했다. 우리는 일본총리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꼼수' 정치로 어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는가. 어찌 그런 아바위 같은 정치술수로 아시아 국가들과 선린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야스쿠니 신사는 어떤 곳인가. 대동아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A

급 전범과 일본군인 등 1만 2천여 위패가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참배한다는 것은 곧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요, 아시아지역에 대한 새로운 팽창주의를 의미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갖은 만행을 저질러왔다. 역사날조, 자원 약탈, 창씨개명, 살인, 고문, 문화재 도굴 및 밀반출은 말할 것도 없고, 생체 실험까지 했다. 관동군 731부대는 마치 없이 사람을 해부하고, 인간이 얼마나 추위에 견디는가의 '저온실험', 기압이 얼마나 떨어지면 숨지는가의 '저기압 실험' 등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다.

독일의 경우 빌리 브란트(Billy Brandt)수상이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여

정치술수 분노와 실망

아시아국가 거센반발

폭넓은 일본연구 등

전략적 대응 필요

무릎 꿇고 눈물로 참회를 했다. 과거에 저질러진 독일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차후에는 이러한 부도덕,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만행을 인정하는 데에 인색하다.

그러면 일본총리가 왜 신사참배를 자행했는가.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일본 내의 우익을 중심으로 한 자민족 중심의 내셔널리즘으로 무장한 인사들의 지지 속에서 자신의

일본국내 정치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도이다. 둘째는 그런 환경적 기틀 위에서 일본헌법 제9조를 비롯한 몇 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국민적 선전 행동이다.

이를 고쳐서 국제사회에서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셋째는 일본이 평성(平成)불경기라 칭하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적 좌절감, 패배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세계가 인정하는 신인(神人)의 제국을 건설해 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일본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신사참배에 대한 국민여론이 갈라져 있다. 또 앞으로 공동개최하기로 한 월드컵에 대한 양 국민의 협조, 일본교과서 왜곡문제, 남극 얼도의 공치점이 조



황진수
한성대학교수
행정대학원장

업문제 등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더욱 곤란한 상태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 우리도 일본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하여 가슴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무슬림들이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 좀 더 깊은 일본연구와 함께 치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행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이번 기회를 우리민족의 재도약과 심기일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21세기의 동반자로서 상호화해와 협조를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총리는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 참회하여야 한다.

열린마당

교계 16개단체 토론회 '해인사 불사'

"자연과 조화 첫째조건"

김재일 <두레문화기행 회장>

문화는 시대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에는 불교문화가 없다. 시대 불명, 국적 불명의 모방된 조형물들이 사찰에 넘쳐나고 있다. 내적 혼란과 정체성의 위기에 빠진 것이 1600년 전통의 오늘날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불교는 홍수에 휩쓸려가거나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절벽에 불상을 세우는 마애불의 시대가 아니다. 환경을 외면하는 불사는 시민들이 오면 할 것이 분명하다. 불교는 자연의 종교다. 부처님은 숲에서 태어나 숲에서 법을 설하다 숲에서 열반에 드시지 않았는가. 절은 자연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왕 불사를 하려거든 자연환경과 조화된 불사를 일으켜 시대정신이 깃든 문화재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주지 임기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졸속 불사는 그만두어야 한다. 하나의 성당을 짓기 위해 200년간의 공을 들이는 것처럼 정성이 깃든 불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교가 발전할 수 있다. 2부대중만이 아닌 4부대중의 뜻을 모은 원력불사에 나서야 한다.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아래 문화·환경·건축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가야산과 범포사찰의 위의를 훼손하지 않는 뜻깊은 불사가 진행돼야 한다.



"환경영향 평가 제대로"

이병인 <일양대 교수·환경공학>

해인사 대불문제는 전통사찰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한 불교의 불사문화를 점검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환경의 가치가 중시되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관점에서 사찰 역사예외일 수 없다. 예전처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의 청정도량으로 살아있어야 한다. 과거 창건주의 지혜와 안목, 현재 살고 있는 사부대중의 보전 노력, 미래 후대의 온전한 계승이 바람직한 사찰 불사의 모습이다.

기록도 남기지 않는 무계획적인 불사는 자연과 조화된 전통사찰의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는 기본계획아래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불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간 전통사찰들은 지자체와의 환경분쟁에서 환경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왔다. 이제는 사찰들이 모범을 보일 때다. 해인사 불사는 수행공간과 수행·포교공간으로 분리, 전통사찰의 편의시설 부족을 해소하면서 불교문화단지조 조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예산이 드는 대규모 불사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충분한 환경 평가를 거친후 기존 건물들과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공간적 특성 고려 추진"

이윤하 <생태건축 연구소장>

80년대 초 막대한 정치자금 이 불교계로 유입, 무계획적인 불사가 진행되어 전통사찰의 조화미가 크게 훼손되었다. 유서깊은 전통사찰의 경관이 조화를 잃어 중국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되었다.

전통사찰 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규모의 거대함을 추구하는 비생태적인 불사는 프로세스(절차와 과정)없는 잘못된 불사다. 지금의 절집이 문화재로 남으려면 현대적 건축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종교·철학적인 의미를 담아 절집의 정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사찰의 불사는 자연과 공간을 고려한 마스터플랜 아래 합당한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대규모 불사를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도 없이 국가적인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건축은 공간의 배치, 공간 구획 및 구성, 자연생태, 소생물 등의 요소들에 대한 복합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사찰 공간의 바람 소통체계, 자연정화 시스템(연못 등), 동식물을 살리는 비포장도로 등 전통사찰의 자연과 조화된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고 기획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불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회통합 역할 해주길"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

불사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께서 중생구제를 위해 펼치는 교화 및 자비활동을 의미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해인사 등 최근의 불사는 사찰의 자립경제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지 개인의 원력으로 대형불사를 경쟁적으로 일으키는 감이 적지 않다. 수행보다는 복덕만을 강조해 소외된 이웃을 끌어안는 불교적 만민평등사상의 실현에서 다소 멀어진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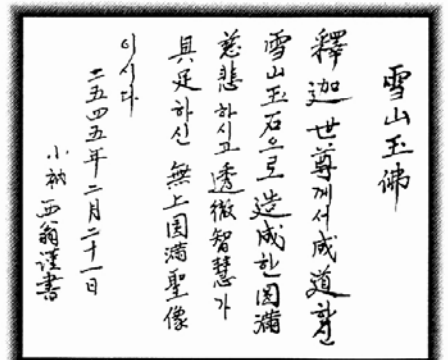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간직할 사찰로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다. 해인사 불사는 생명해방운동으로서의 불사가 되었으면 한다. 진리를 체득하고 전달하는 본래의 정신적 불사에 맞는 인간방생에 나서야 한다. 만약 유형의 불사를 하려거든 시대정신과 예술혼이 깃든 대작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해인사의 불사는 비폭력 평화운동으로서의 불사여야 한다. 개인적인 구복을 넘어 한국사회의 분열상을 극복하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한다. 수행풍토 조성, 인재 양성, 시민들의 정신적 심터 제공, 사찰 재정의 공개,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와 대중속에 뿌리내리는 민중의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추진서



김승현님 방상 석공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